소년단

옥수수
(3분단

1956.10

아침 체조　　　김 창규촬영

앞표지 : 실습지에서의 옥수수 수확…………김 진 항 그림

시

몸과마음 강철로

윤 동 향

넓다란 운동장은
우리들을 부른다.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구르며
나아가자 동무야 경기장으로
우리들은 나어린 스포츠 명수
몸과 마음 강철로 다져 나간다.

가슴에 팔 다리에
붉은 피가 끓는다.
용기와 지혜로 뭉친 우리 힘
승리는 언제나 우리 것이다.
우리들은 나어린 스포츠 명수
몸과 마음 강철로 다져 나간다.

고향 땅 싸워 지킨
영웅들을 따라서
자라는 우리는 나라의 기둥
너도 나도 앞날의 교대자이다.
우리들은 나어린 스포츠 명수
몸과 마음 강철로 다져 나간다

빛나는 앞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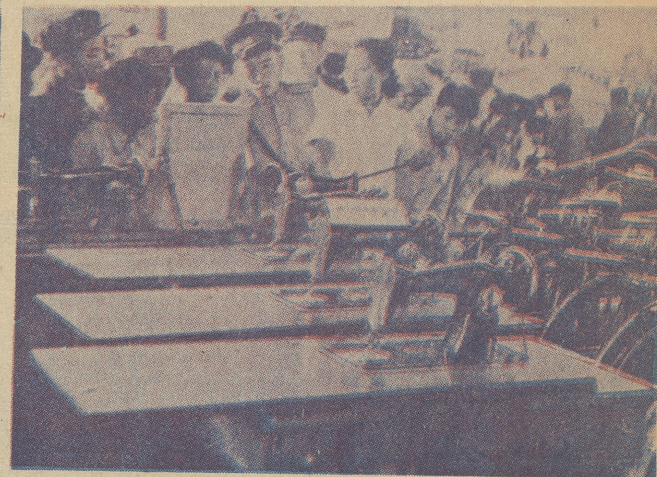
집집마다 꽃피여 나는 생활을 기뻐하는 웃음 소리 높다.

물건 값을 내리우고 또 내리우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올리고 또 올린다. 이처럼 항상 인민들의 살림이 늘어가고 꽃피도록 고마운 배려를 베풀어 주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인민들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인민들의 기쁨은 참으로 크다. 나는 인민들의 기쁨을 사진에 찍기로 하였다.

국영 상점들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더욱 흥성거린다. 평양 제1 국백의 오후다. 소년단원들은 학용품을 사려 문방구를 파는 곳으로 모여 든다. 콤파스, 필통, 노트 등 많은 학용품이 눅은 값으로 팔리고 있다.

《필통을 하나 삽시다…》. 《콤파스를…》 《학습장을…》하고 소년단원들은 사방에서 자기들이 살 학용품을 찾는다. 판매원 언니들은 분주하게 일한다.

2고중 인민반 2학년 김 정남 동무와 4인민 학교 3학년 최 종균 동무는 학습장과 연필들을 사들고 또 무엇을 살 것인가 하고 생각에 잠겼다.

한쪽에서는 전문 학교 학생들이 방금 산 필통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있다. 알아 보니 송림 금속 전문 학교 언니들이였다. 김 화순 언니가 송림 제3 인민 학교에 다니는 동생 락범에게 줄 필통을 샀는데 함께 온 다른 언니들은 그것이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였다. 김 춘복, 리 순자 언니도 부러운 나머지 필통을 하나씩 사고 최 영화 언니는 나무자를 하나 샀다.

이 언니들은 8·15 해방 11주년 기념 공업 및 농업 전람회를 견학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였다. 이들은 전람회에서 당과 정부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힘써온 빛나는 성과를 똑똑히 보았다고 기뻐한다.

나도 거기에 가보고 싶었다. 전람회장 앞에는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

기계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 기계들은 희천 공작 기계 공장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기계들입니다. 이 공작 기계들은 우리 나라의 중공업은 물론 농업, 경공업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재봉침과 자전거도 이런 공작 기계들로 만들어 낸답니다. 첫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공장에서는 10종 이상의 공작 기계를 년 1,000대 이상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한 병옥 언니는 볼반, 직결 선반, 만능 선반, 쎄빠 등 기계들을 운전해 보이며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의 발전 전망을 이야기한다.

바로 그 옆에서는 《평화》라는 우리 글이 새겨 있는 재봉침과 《백두산》이라는 표가 붙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재봉침은 쏘련, 독일, 일본, 미국제 재봉침들의 좋은 점들을 본따서 만든 것으로서 전직물 스무겹을 누빌 수 있

석회석으로 만든 카바이트로 합성 섬유 (인조 섬유)를 만들어 짠 천과 샤쯔도 관람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합성 섬유 공업도 발전하게 되여 더 많은 옷감을 받게 될 것이다.

으며 앞뒤로 누벼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것이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래년부터 재봉침과 자전거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소년단원들은 자전차에 마음이 끌리는 것 같다.

녕변 견직 공장의 8급공인 김 경희 언니는 전람회장에서 무늬 아름다운 양단을 짜고 있다. 소년단원들은 하나 둘 꽃무늬를 놓으며 짜나가는 양단을 흥미 있게 바라 본다. 평양 제9 중학교 인민반 전 정희 동무는 자기가 입은 비단천도 이 공장 언니들이 짰을거라고 기뻐한다.

김 경희 언니는 자기와 둘이서 양단 짜는 기계 석대를 맡아 보는 김 복순 언니에게 이렇게 편지했다고 한다.

《빨리 공장에 돌아 가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들이 짜는 비단천을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제 돌아가면 더욱 일에 성수가 날 것 같습니다》.

쏘련 인민이 보내준 자동 직포기, 체호슬로바끼야 인민들이 보내 준 양말 짜는 기계도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의 행복한 생활은 인민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형제 나라 인민의 따뜻한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 빛나는 앞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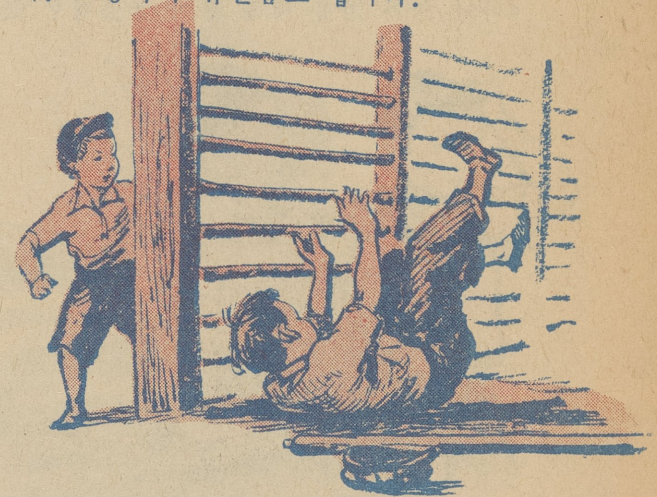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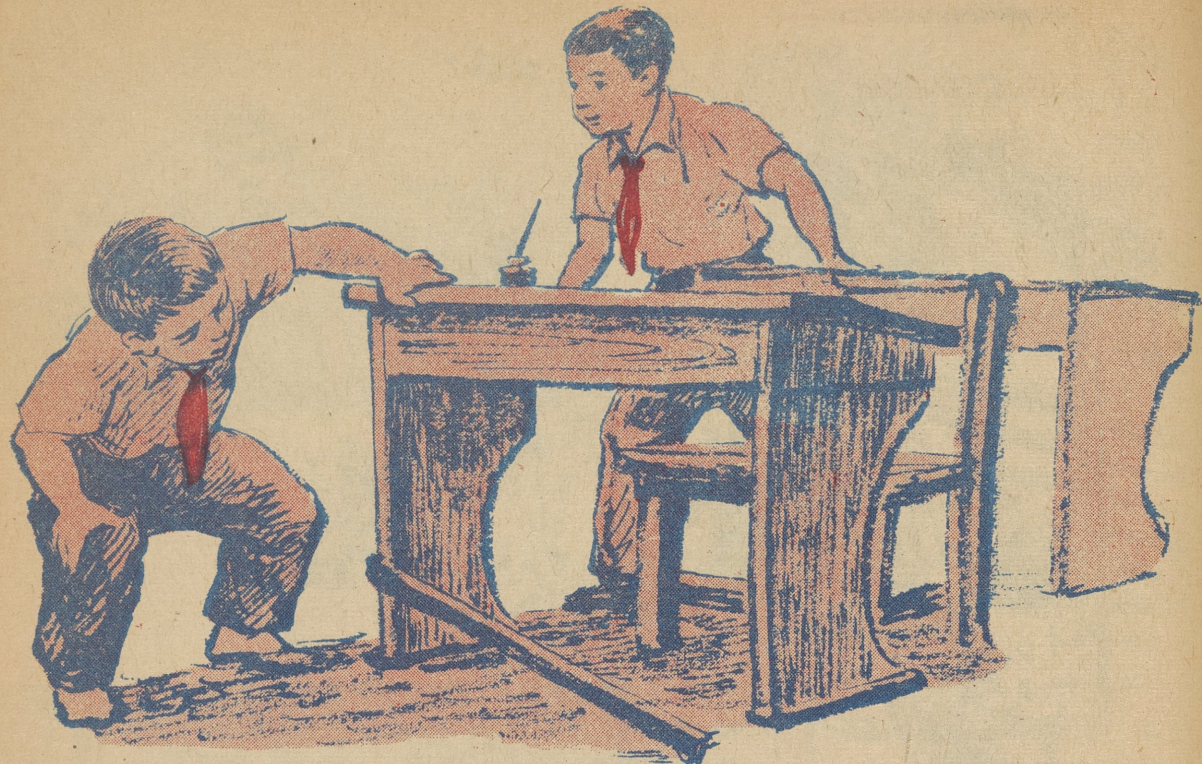
(김 창 규)

그림 이야기

목 봉 대

최 옥 선 글
리 건 영 그림

1. 선우는 오늘도 아동 공원에서 즐겁게 놉니다. 배그네 회전그네 미끄럼대 모래터 등에서 노는 것도 재미 있지만 선우는 목봉대에 매달려 오르 내리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고양이와 쥐놀음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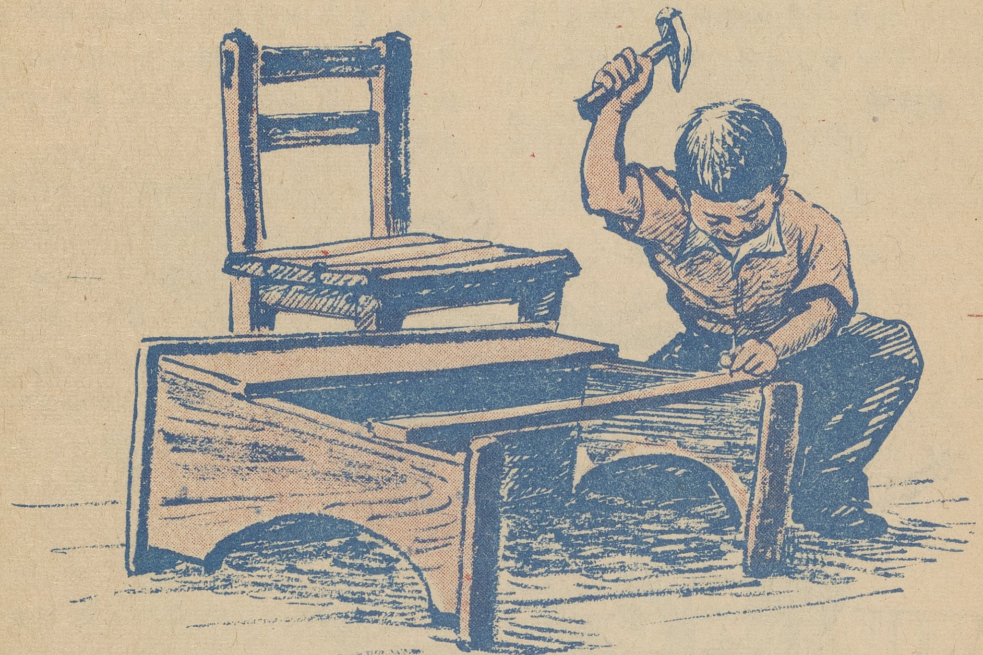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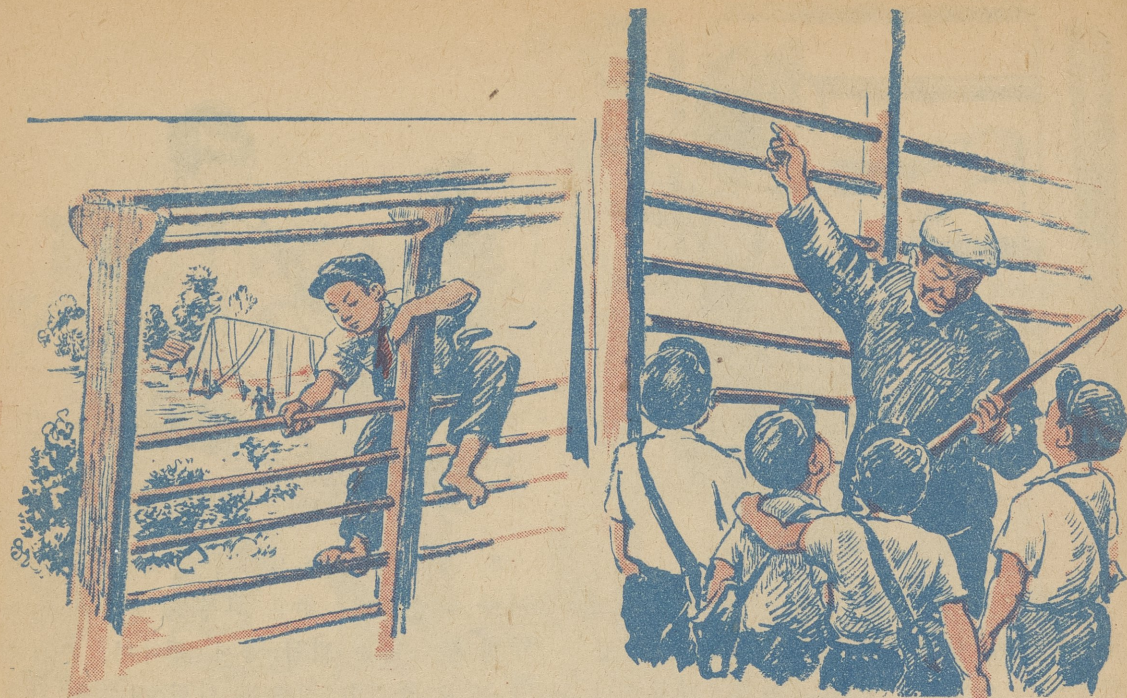
2. 고양이가 된 기환이가 쥐로 된 선우를 막 잡으려 따라 옵니다. 바빠난 선우는 기환이가 더 따라 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두 발을 굴러 목봉을 내려 찧습니다. 목봉이 빠졌습니다. 선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3. 《에이, 이젠 우린 못놀게 됐네!》 달려온 1학년 동생들이 이가 빠진 목봉대를 가리키며 속삭입니다. 《남은 아파 죽겠는데 목봉대가 제일이야》. 선우는 벌떡 일어나면서 목봉을 집어 멀리 던졌습니다. 기환이가 선우의 옷을 털어 줍니다.

4. 이튿날이였습니다. 선우는 책상이 이글쩌글해서 글을 잘 쓸 수 없었습니다. 책상을 살펴 보던 선우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투덜댑니다.

《아니 누가 가름'대를 뽑아 놓았어? 못쓰게 했으면 고쳐 놓을거지》.

5. 뒤에 앉은 기환이가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구 고치자야, 우리두 어제 목봉대를 못쓰게 하구 고치지 않았으니 다른 아이들이 욕할거야…》. 이 말을 들은 선우는 머리를 긁적긁적 긁습니다.

6. 학기초에 가졌던 《공동 재산을 애호하자》라는 분단 모임 때 일이 생각난 선우는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때 선우는 공동 재산이 못쓰게 되지 않도록 잘 쓸 것이며 만약 잘 못하여 못쓰게 되였을 때에는 제때에 고치자고 토론했던 것입니다.

7. 학습이 끝난 뒤 선우는 아동 공원으로 막 달려 왔습니다. 아까 집어 던졌던 목봉대는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었습니다. 선우는 목봉대의 길이를 재여 가지고 급히 집으로 달렸습니다.

8. 집에 온 선우는 나무'대를 얻어서 연방 깎습니다. 굵은 나무를 목봉대에 알맞게 깎는데는 힘이 몹시 듭니다. 방울방울 땀을 흘리는 선우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봉대 하나에도 로동자 아저씨들의 힘이 참 많이 들었겠구나》.

9. 선우는 이튿날 아침 일찌기 마치와 못을 가지고 학교에 왔습니다. 선우는 자기 책상의 뽑아진 가름'대를 바로 맞춰 탕탕 못을 박았습니다. 이글쩌글하지 않는 책상을 살펴보며 혼자 기뻐할 때 기환이가 교실에 들어 왔습니다. 《선우야 너 책상 고쳤니!》.

10. 이날 학습이 끝난 선우는 남보다 먼저 집으로 달려가 어제 깎아 놓았던 나무'대를 가지고 아동 공원으로 왔습니다. 선우는 신이 나서 목봉대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꼭꼭 맞습니다. 못까지 박고 나니 든든합니다.

11. 공원을 돌보는 관리원 아저씨가 나무'대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고쳤나 응?». 두리번두리번 살피십니다. 분단 동무들도 목봉대 곁에 왔습니다. 이때 1학년 동생들이 «선우가 고쳤어요. 아주 잘 고쳤지요»하며 목봉대에 매여 달렸습니다.

12. «참 잘 고쳤는데, 내가 만들어 온 것은 쓸데없이 됐군!». 관리원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에 든 나무'대를 내 보이며 아주 기뻐하십니다.

선우와 분단 동무들도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젠 못쓰게 안되게 잘 가지고 놀겠어요».

(사리원 사범 부속 인민 학교 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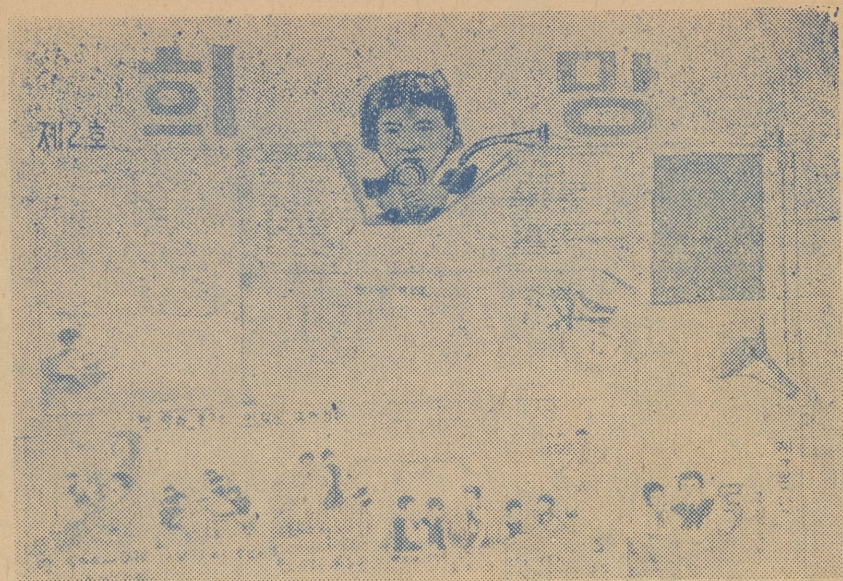
토 도 강 (중국)

우리 동생 키도 작지
걸상보다 더 작지.
말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자꾸 웃기만 하지.

우리 동생 걸을 때면
정말 우습지.
걸음마다 비청비청
두 걸음만엔 엎으러지지.

우리 동생 내 동생은
걱정 근심 모르고 살지.
그 누가 폭탄으로 죽이려해도
어떻게 막는지 모르고 살지.

우리 동생 까만 눈동자
그 마치 이렇게 말하는듯
—나를 지켜 달라.
　내가 어서 커야지!

(리 순 영 역)

벽보 희망

어제 저녁에 새로 붙여 놓은 벽보가 동무들의 마음에 들것 인가를 생각하며 나는 여느날 아침보다 좀 이르게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야 너희들 벌써 왔구나》. 나는 새로 나 붙은 벽보 앞에 모여 선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이건 참 좋은 충고야》.

《응 이 그림도 그럴듯 하게 되였지》.

동무들의 이런 속삭임은 벽보 주필인 나를 대단히 만족시켰어요.

새학기에 들어 와서부터는 분단에서 발간한 벽보들이 점점 동무들의 좋은 평을 받으니까요.

이윽고 전 학자 동무가 다른 몇동무들과 함께 소리처 웃으며 들어 오겠지요.

벽보 앞에 모여 섰던 동무들은 학자 동무를 흘끔흘끔 쳐다 보고 있었어요.

학자 동무도 벽보 앞에서 발을 멈추고 한참 말없이 읽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지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난 지금도 부끄러워…》. 학자 동무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어리였습니다.

분단에서 제일 말썽거리던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 시작하였을 때 동무들과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몰랐어요.

모임 때마다 동무들은 학자 동무에게 많은 충고를 했답니다.

《넌 왜 지각을 하니?》.

《넌 왜 동무들과 화목하지 못하냐?》.

동무들의 친절한 물음에도 학자 동무는 《너흰 별 참견을 다 하누나》하고 톡 쏘아댔지요.

지난 학기에 우리는 학자 동무를 도와 줄데 대하여 여러가지로 의논한 끝에 그의 그릇된 행동을 분단 벽보를 통하여도 충고를 주기로 했지요.

그리하여 거리에서 동무들과 싸우고 있는 전 학자 동무를 분단 벽보에 만화로 실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못마땅하게 여기며 열성자들에게 《흥 암만 그래 보라지》하고 불평을 말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각을 자주 하며 숙제를 잘 안해 오는 그를 기회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충고도 했고 벽보로도 계속 충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우쭐대던 학자 동무가 분단 동무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였고 점점 나쁜 점들을 고치기에 애써 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이렇게 되자 우리는 벽보 《희망》 제2호 편집을 위한 기사를 그에게도 위임했습니다.

《내가 그런걸 어떻게 쓰니》. 학자 동무는 나의 부탁에 이렇게 말하며 돌아 서겠지요.

나는 그에게 잘 타 일렀습니다.

다른 동무의 잘못을 충고하면서 자기도 고쳐 나가면 되지 않는가구요.

곰곰히 생각하던 학자 동무는 어떤 결심이 생겼던지 《그래 써올께》하고 나의 부탁을 승낙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학자 동무는 《참새는 아닌데》라는 글을 아주 훌륭히 써 왔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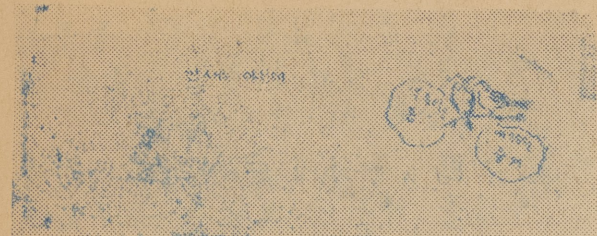
우리 분단에는 아직도 공부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치자는 것이였어요.

분단 위원회에서는 학자 동무를 몇번이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그리하여 이번 벽보에는 《전 학자 동무는 이렇게 고쳐졌다》라는 그림이 나붙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벽보는 말없는 교양자라는 것을 동무들과 나는 다시금 느끼게 되였어요.

《어떻게 하면 좀더 훌륭한 벽보를 만들 것인가?》.

지금 나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보는 소년단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라고 하시던

《참새는 아닌데…》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이 떠 오를 때마다 지난날 우리 분단 벽보들이 눈 앞에 나타나지요. 한때 우리 분단 벽보는 동무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답니다.

꼭같은 그림안에 기사들은《공부를 잘하자》《떠들지 말자》등으로 하자하자고만 하니까 구호처럼 제목만 읽고 마는 것이였어요. 그것도 몇사람의 힘으로만 만들어졌지요.

새학기에 들어와서 우리 분단 위원회에서는 분단 동무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것들을 재미있어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다고 의논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동무들이 새로 나온 벽보를 바라 보고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끔 하기 위하여 형님 누나들의 도움도 받으며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기에 애썼지요.

이때에 새로 선거된 분단 위원회는 벽보 편집부를 도와 여러가지 사업들을 조직해 주었습니다.

분단에서 그림과 작품을 모집하고 이것을 벽보에 붙여 주며 많은 동무들이 원고를 써 내도록 조직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벽보 편집에 좀 더 많은 동무들이 참가하게 된 다음부터 우리 벽보에는 좋은 기사들이 실리게 되였습니다. 《화자 동무는 할머니를 이렇게 도왔다》, 《로동을 싫어하는 영숙 동무》등 열성자들이나 우리 벽보 편집부에서 모르는 일들을 제때에 실릴 수 있었지요.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우리 분단에는 결석생과 지각생이 많았고 성화 동무처럼 학습장을 찢어 가지고 다니며 숙제를 하지 않는 동무도 적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분단 동무들의 성적이 좋을리 없었지요.

새 학기부터 우리 벽보에는 《귀중한 45분》, 《전 을선 동무는 이렇게 학습한다》. 《로력과 열매》등 학습을 위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만화《전 학자 동무는 이렇게 고쳐졌다》

동무들에게 있는 결함들을 제때에 충고해 주고 모범적인 사실들은 찬양해 주면서 모두들 본받게 했지요.

이때부터 많은 동무들이 자기의 결함을 고쳐 나가며 뒤떨어진 학습을 서로 도와 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내가 읽은 책》, 《이 책들은 나의 학습을 도왔다》등 동무들의 읽은 책에 대한 감상문을 통해서 많은 동무들이 책을 사랑하며 읽게 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달에는 이런 일들을 하련다》라고 분단 위원회가 하려는 일을 벽보에 내 놓고 동무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벽보가 점차 흥미있게 만들어지고 동무들의 목소리가 담겨짐으로써 우리들의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분단에서는 더 훌륭한 벽보를 내기 위해서 누구나 모두 원고를 써 내며 자기의 요구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리하여 우리들에게 새것을 배워 주며 서로 이깨워 주고 있는 벽보를 한달에 두번씩 꼭꼭 만들어 내면서 제때에 총화를 지어 결함을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함남 신창군 제3 중학교(인민반)대
제7분단 윤 광 자

화물 자동차 한대가
신작로를 달렸네.
싸움터로 보내는
대포알을 싣고서.

어두운 밤'길을
쏜살처럼 달렸네.
미국놈을 쳐부실
대포알을 싣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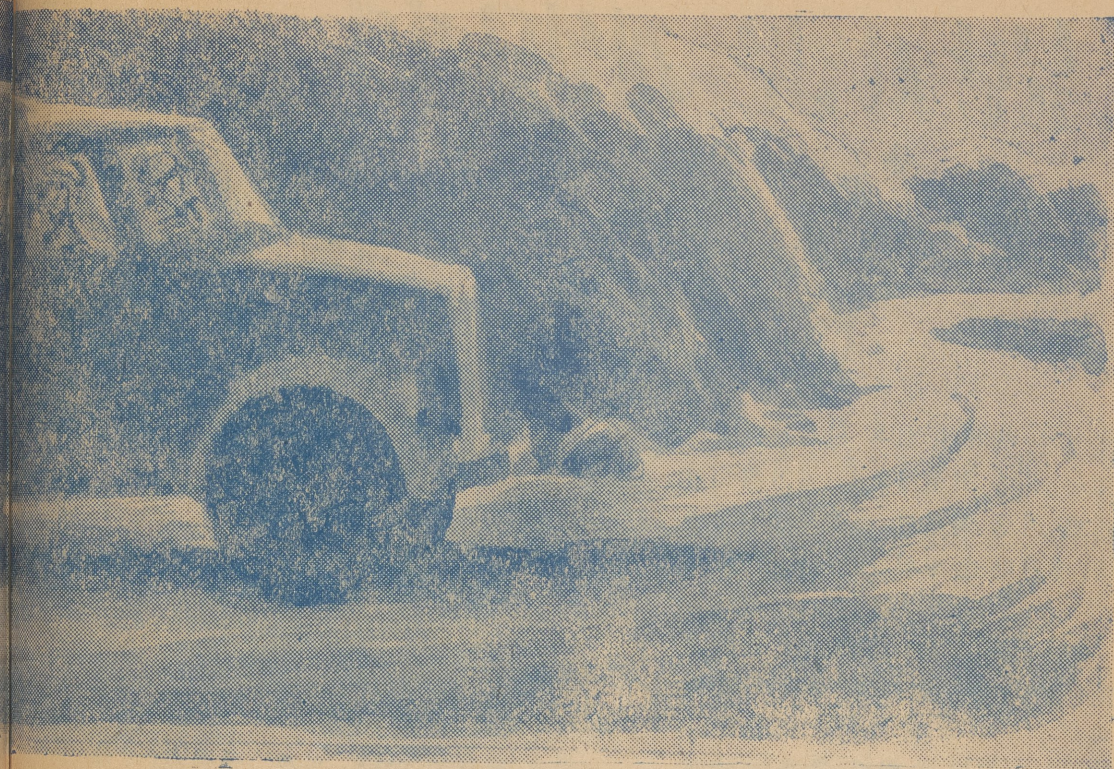
제비처럼 달리다가
진흙 속에 빠졌네.
푸릉푸릉 차바퀴는
헛돌기만 하였네.

비 개인 밤 하늘에
미국놈의 비행기
산마루를 넘어서
붕붕 날아 왔네.

신작로 밤'길 우엔
사람 하나 없는데
화물차 운전사만
갈 길 바빠 하였네.

문도 없는 빈 집이
어둠 속에 있었고
집 뒤 방공호에
창식이네 살았네.

창식이네 온집안이
뛰여나와 밀었건만
진흙 속의 차바퀴는
자꾸자꾸 헛도네.

재빠른 창식이가
웃동리로 달려 갔네.
공부하던 학생들이
너도 나도 뛰여 왔네.

길고 굵은 바'줄과
둥글은 토막나무
괭이 삽 들고 메고
밤'길을 달려 왔네.

이영차 어기어차
밀고 끌고 하더니
파 헤치고 돋우고
밀고 끌고 하더니

운전사 흐르는 땀
몇번이나 닦고 나서
자동차가 움찟움찟
세번 네번 하더니

부릉부릉 부르릉
차바퀴가 나왔네.
토막나무 넘어서
멋지게 굴러 나왔네.

학생들은 와—하고
기쁜 고함 치는데
운전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네.

운전사는 고맙다고
중국말로 쎄—쎄
학생들은 조선말로
지원군 만세 불렀다네.

하늘에는 그때까지
미국놈의 비행기
조명탄을 달아 매고
뱅뱅 돌다 내뺐다네.

분단 사업은 개선되였다

분단 열성자 선거가 있은 날이다.

민 덕호는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된 기쁨도 컸지만 지난 학년에 있은 분단에서의 결함을 생각하면 짐이 무거운 것만 같았다.

《우선 관일이와 친해야 할텐데…》. 덕호는 성해와 함께 걸으며 이런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

《얘 관일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소년단원이 될 수 있게 할가?》. 덕호의 이런 말에 성해는 잠잠히 걷기만 했다.

《그래 넌 관일이가 고쳐질 수 없다고만 생각하니?》.

《참 답답한 애야. 분단의 영예만 떨어뜨리구》.

성해는 장난'군인 관일이의 얼굴을 그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새 학기에 들어와서도 그의 장난은 계속되였다.

어느날 학교 옆 우물에서 물을 마신 관일이는 돌아서 오다 말고 양복 바지 주머니에서 고무총을 꺼내였다.

《어디 한번 맞혀 볼가》. 버드나무가지에 앉은 참새를 겨누며 한 눈을 지긋이 감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쨍그닥》하는 소리와 함께 물동이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했다.

낮은 가지에 앉은 새를 쏘다가 그만 빗나가 물동이에 맞은 것이다. 그는 당황해서 막 달음질쳐 내뺐다.

《학교 다니는 애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응》. 아주머니는 여간 분해하지 않으셨다.

이때에 우물'가를 지나치던 2분단 동무들은 달음질쳐 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였다.

《저게 1분단 관일이가 아니냐?》.

《응 저 앤 참 장난'군이지》.

《정말 1분단의 수치야》.

뒤를 흘금흘금 돌아다 보며 뛰던 관일이는 떠들며 오고 있는 동무들을 보자 《에잉, 오늘은 재수가 없는데》 하고 골목길로 숨어 가는 것이였다.

그의 장난은 이것 뿐이 아니였다. 지난 학기에도 그는 녀자반 동무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교실 출입문을 밖으로 꼭 잠그어 버리고 달아 났다.

이때 녀동무들은 관일이를 욕하며 그의 분단까지 나무랩했었다.

이런 때마다 지난날 분단 위원장이였던 성해는 관일이에게 친절하게 타일러 주었다.

《 네가 뭐냐 나보다두 작은게…》. 관일이는 와락 성을 내며 대들었다.

분단 열성자들은 관일이와 또 그와 제일 친하게 싸다니며 장난하는 영길이를 분단에 둘 수 없는 동무로만 생각하게 되였다.

《모임만 가지면 뭘하나, 암만 타일려도 그만인데》. 분단 위원회는 분단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 두 동무 때문이라고만 믿어 왔던 것이다.

지난날 분단 위원회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준채 새학기를 맞이했다. 지난날 생각을 하며 잠잠히 걷던 성해는 덕호에게 《우리 분단엔 관일이만 없으면 아무 말썽거리가 없을거야》.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긁적긁적했다.

《어떻거나 고치도록 그앨 도와 줘야지. 더군다나 졸업반인데》 하고 덕호는 힘있게 말하는 것이였다.

며칠후 분단에서는 열성자 모임을 가졌다.

이날 분단 위원장은 분단 사업의 개선을 위해 먼저 관일이가 영길이를 도와 줄데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자기가 그의 뒤떨어진 학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 다음날부터 덕호는 성해와 함께 관일이를 찾아 갔다.

《관일아, 우리 뽈 차러 안갈래?》.

《난 숙제를 해야겠어》. 관일이는 나즈막하게 대답하며 이마'살을 찡그리는 것이였다. 그는 분단 열성자들이 오늘도 같이 공부하자고 찾아 온 줄로만 생각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였다.

《숙제는 저녁때에 하자구. 동무들이 널 기다리고 있는데…》하고 덕호는 이번 체육 대회에서 우리 분단이 꼭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련습하는게 좋지 않겠는가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관일이는 좋아서 모자를 쓰고 나왔다. 그러지 않아도 관일이는 숙제보다 밖에서 뛰놀고 싶었던 것이다.

본래 관일이는 뽈 차는데는 선수다.

관일이가 신이 나서 동무들과 뽈을 차며 놀고 있을 때에 시간을 따져 보던 덕호는 《얘 우리 그만 련습하자, 숙제두 해야지》하고 관일이의 손목을 잡았다.

《우리 일과표를 짜 볼가, 공부하고 나면 뽈 차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관일이의 옷을 털어 주며 이렇게 말하는 덕호의 의견은 그리 반갑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친절히 타일러 주는 덕호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관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다.

덕호는 공부하다 쉬는 때면 관일에게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 주군 했다.

《너 소년단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소년단원 축전 때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준 내각 축하문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덕호는 수첩을 펴놓고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다. 날이 갈수록 덕호의 도움은 컸었다.

《관일인 숙제를 훌륭히 했군》. 관일이에 대한 선생님의 칭찬은 덕호와 분단 동무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관일이의 나쁜 장난을 하는 버릇은 다 고쳐지지는 않았다.

방과후 실습지에서 동무들은 옥수수를 따느라고 분주할 때에 그는 영길이를 피여 가지고 뺑소니쳤다. 날마다 화목해져 가는 분단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새 힘을 얻어 오던 분단 위원회는 관일이와 영길이를 위해서 분단 모임 때에 발표할 스켓취를 련습하기로 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스켓취는 훌륭히 되였다. 바로 실습지에서 있은 일을 내용으로 한 스켓취이다.

관일이와 영길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랐다.

스켓취에서 분단 위원장 역인 원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영일(주인공 관일을 말함)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꼭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엇이나 하고자 하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지요》.

관일이의 두 눈은 빛났다.

《로동을 사랑하며 사회 재산을 보호하며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풍습과 도덕을 지키며 선생님과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아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각 축하문이 그의 머리에 떠 올랐던 것이다.

그후부터 관일이의 장난은 나아져 갔다. 관일이와 영길이는 덕호를 몹시 따르면서 그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애썼다.

소제도 열성적으로 했고 실습지 배추밭도 자주 돌보며 풀을 뽑아 주었다.

《얘들아 우리 소구산에 답사 가자꾸나》 분단 열성자들과 친해지자 그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분단 위원회에 제때에 내놓게 되였다.

분단에서는 일요일에 소구산 답사를 떠났다. 누구보다도 관일이의 마음은 기뻤다. 자기의 의견에 의해서 조직된 소구산 답사가 아주 즐거웠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 분단에서는 관일이의 제의로 폐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토요일마다 가질 체육 경기를 위해서 뽈을 사며 또 도서들도 자기들의 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듯 분단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지 않던 동무들까지도 의견을 내놓고 서로 의논해 나가는 이 분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직해 나가게 되였다.

벌써 이들은 제련소, 기계 제작소를 견학했고 만덕산에서의 이야기 모임도 가졌다.

이처럼 소년단원들에게 보낸 내각 축하문에 보답할 수 있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하여 힘써 배워 나가는 덕호네 분단 사업은 날로 개선되여 가고 있다.

(강원도 문천 인민 학교 대에서)

박 정 렬

2 마을에서 풍작으로 이날을 맞으면
학원에서 우리들은 최우등생 되지요
(후렴)

3 행복으로 꽃피는 땅 굳게 굳게 다져갈
인민주권 선거 날은 우리들의 명절날
(후렴)

금수산——(모란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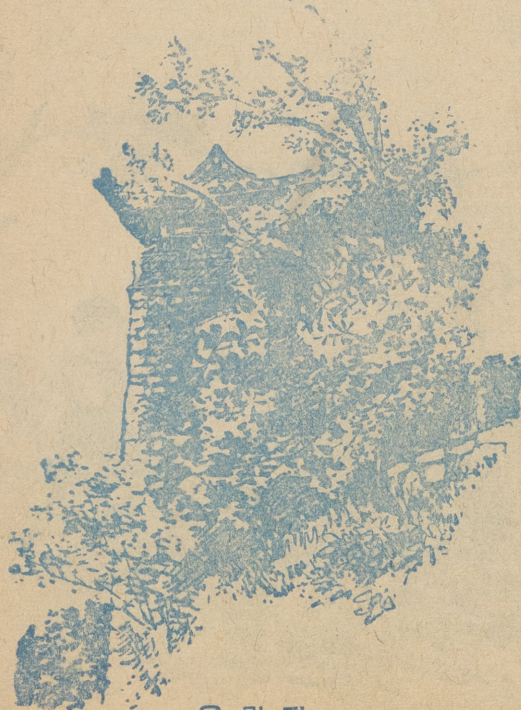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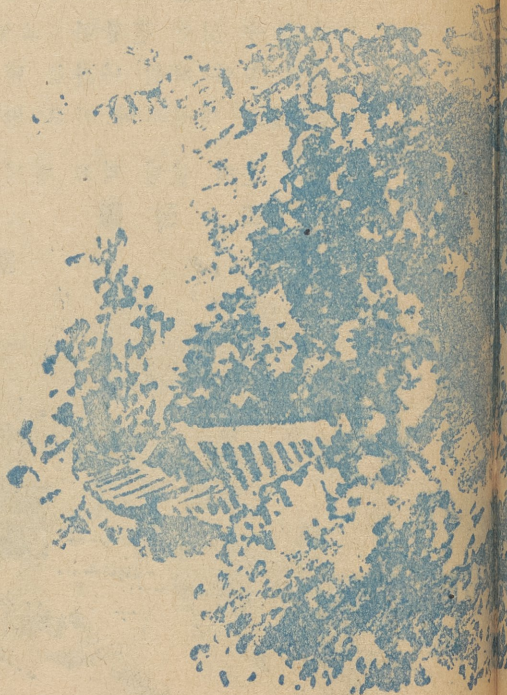
우리 나라의 자랑

아름다운 모란봉

옛날부터 인민들의 노래에 불리워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란봉! 지금 금수산을 보통 모란봉이라고 부르고 있다.

평양의 중심 지대에 있는 금수산은 모란봉과 을밀봉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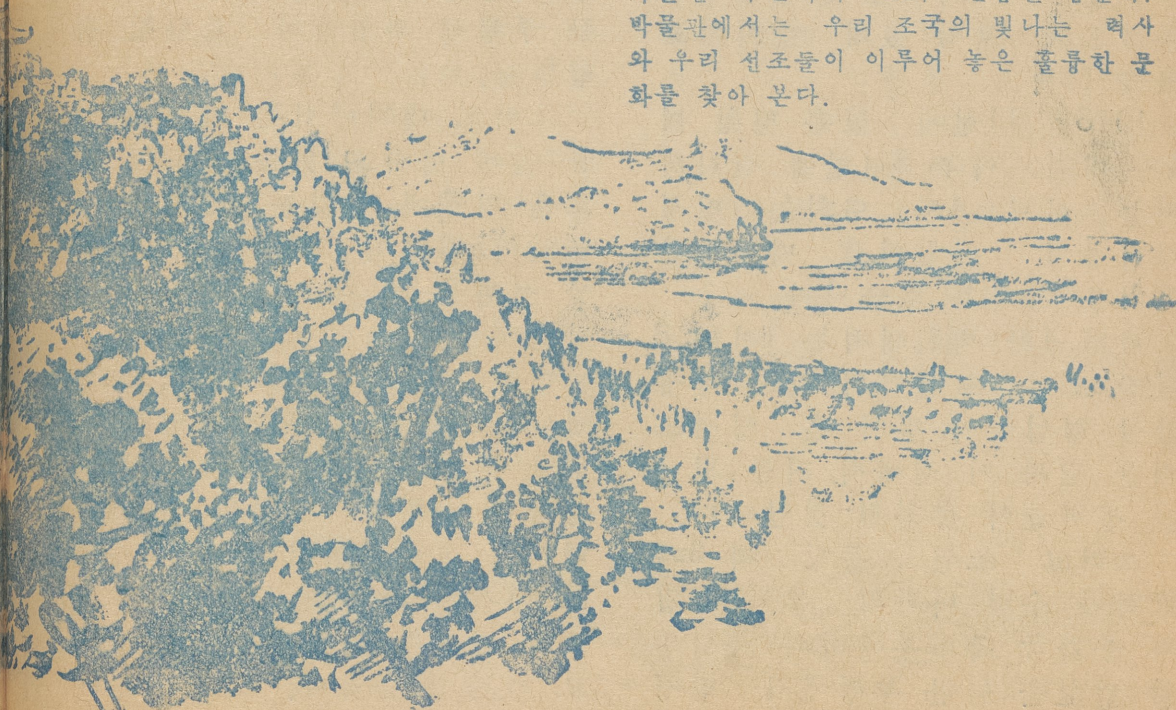
이 아름다운 봉우리들에는 인민들의 슬기로운 력사와 인민들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깃들어 있어 더욱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전쟁 때에 미제 야만들의 눈 먼 폭격으로 상처 입었던 모란봉은 모란봉을 사랑하는 인민들의 힘으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단장되였다.

모란봉은 그 생긴 모양이 모란꽃과 같다 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모란봉우에는 최승대가 있다.

을밀봉은 고구려의 명장 을지 문덕 장군의 아들인 을밀이가 여기서 침략해 온 외적을 막아내는데 공훈을 세웠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을밀봉에는 을밀대가 있다.

600여년전에 지은 을밀대 는 아름다운 평양시를 바라보기 좋은 곳이다. 옛날 모란봉 군대 지휘처로서 또 평화시는 인민들의 즐거운 놀이터로 되여 왔었다.

모란봉을 찾는 사람들은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 부근에서 오래 걸음을 멈춘다. 박물관에서는 우리 조국의 빛나는 력사와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문화를 찾아 본다.

박물관 앞에 있는 나부사 9층탑

을 밀 대

모란봉의 최승대

지난 5월 21일—22일에 있은 민청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오는 11월에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4차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청년들과 민청 형님들은 이 뜻 깊은 대회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으며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의 결정들을 더욱 성과있게 실행하는 투쟁으로 보람 있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1948년 11월에 있은 민청 제3차 대회 이후 8년만에 열리게 되는 이번 4차 대회는 민청 형님들의 사업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대회에서는 지난 8년간 조선 로동당의 지도 밑에 민청 형님들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과 이 길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들이 총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가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민청 형님들 앞에 내세운 과업들을 훌륭히 실행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민청 형님들의 사업에서 얻은 경험들을 널리 살리며 지난번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가 지적한 형님들의 사업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결함들을 시정하고 민청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과업들이 토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민청 형님들 앞에 나서고 있는 오늘의 새로운 임무에 알맞는 민청의 새 규약이 채택될 것이며 민청 중앙 기관들을 새로 선거하게 될 것입니다.

민청 제 3차 대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8년간 민청 형님들과 전체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고무되면서 항상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노래하였으며 조국 건설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 왔습니다.

민청 형님들은 평화적 건설 시기와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리고 전후 복구 건설 시기의 매 계단마다에서 그 어느 때나 당과 정부의 정책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자기의 모든 힘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쳐 왔습니다.

젊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승리를 보장케 한 박 원진, 신 기철 형님들처럼 청춘을 보람 있게 보낸 수 많은 영웅들과 당 운실, 김 봉례 누나들을 비롯한 수 많은 로력 영웅들의 투쟁은 민청 형님들의 산 모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청년들과 민청 형님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인민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민청 형님들은 지금 공장과 전야, 건설장과 학원에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성을 다하여 일하며 배우고 있으며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오늘 민청 제 4차 대회를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 결정 실행을 위한 보람찬 로력 투쟁으로 맞이하는 민청 형님들을 본따라 우리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더욱 열심히 참가합시다.

대와 분단들에서 우리는 계속 꾸준히 실험 실습과 관찰 연구들을 훌륭히 진행하며 공장과 광산들도 견학하고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지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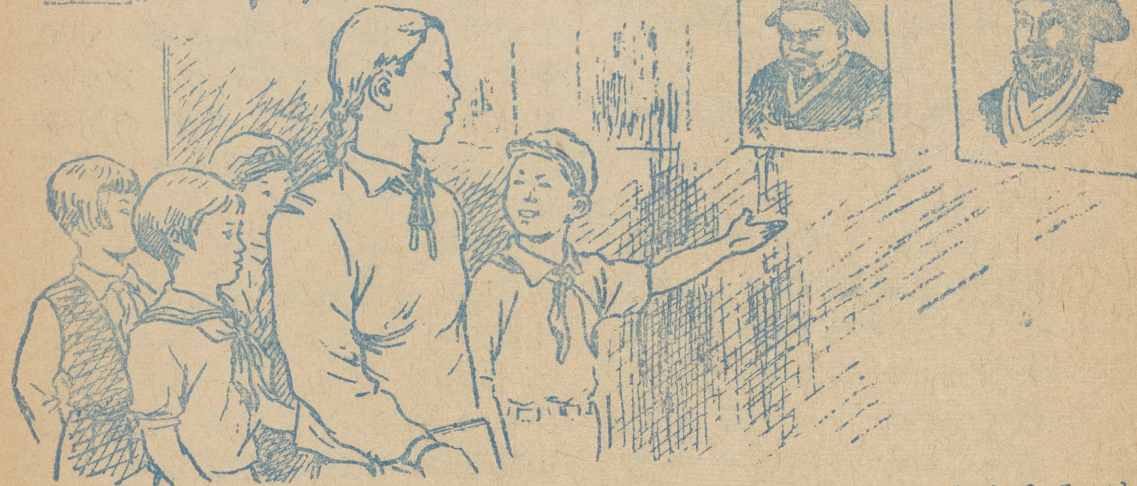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을 도와 더 많은 표본들과 실험 기구 등 여러가지 교편물들을 만드는 한편 우리의 재간 있는 솜씨들을 자랑할 각종 전람회와 연구 발표회들도 자주 조직합시다.

그리고 학교 실습지들을 더 잘 가꾸며 거기에서 새 영농 지식들을 훌륭히 배워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조국 앞날의 훌륭한 기술 일'군으로 열심히 배우며 준비합시다.

우리들은 새로 선거된 열성자들과 함께 분단과 반에서 더욱 재미 나는 일들을 조직하며 우리 나라의 명승 고적들과 고향의 력사들을 연구하기 위한 행군 답사들도 더 많이 조직합시다.

소년단원 동무들!

뜻 깊은 민청 제 4차 대회를 맞으면서 소년단 생활을 보다 훌륭히 개선하도록 다 같이 힘써 나갑시다.

우리 나라 명인들을 연구하며

사정 없이 내리던 소나기가 방금 그친 뒤 나는 창덕 인민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나를 만나는 동무들은 저마다 다정한 소년단 인사를 보내는데 3,4 학년 동무들은 두 팔을 부르걷고 흙장난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 몹시도 장난 하는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들 가까이 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비'물로 이루어진 실도랑을 가로 막는 것입니다. 흙으로 막은 동 밑에는 정낭가지 같은 나무가지를 수많이 꽂아 놓고 만세를 부르며 동을 터뜨렸습니다. 곁에 섰던 몇 학생은 《수 나라 군사 모조리 떠내려 간다》고 손'벽을 치며 물'줄기를 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동무가 말했습니다. 《거기는 청천강이냐? 여기는 압록강이다. 원수님은 열네살때 압록강을 건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라고》. 이렇게 웨치며 두 발을 벗고 도랑을 건넜습니다.

모두 행복한 웃음 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때야 꼬마 장군들임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나는 그들과 친하게 되였고 학교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복도 좌우편에 들어서자 큼직큼직한 초상화들이 눈에 띄였습니다.

8분단 분단 위원장인 하 원무 동무가 먼저 박 연암 선생의 초상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기 분단 동무들이 박 연암 선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어느날 분단 열성자 모임에서는 연암 선생을 따르자는 이야기 모임을 가질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우선 분단 전체 동무들에게 연암 선생에 대한 책들을 읽게 하였습니다. 최 영남 동무가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연암 선생의 생애와 활동에 대하여 모임에서 분단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제각기 자기가 읽은 책들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대위원인 김 성국 동무가 연암 선생이 지으신 《민옹전》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였습니다. 연암 선생은 민옹전에서 《종로 앞길에 꽉 차 있는 황충(벼메뚜기)들은 모두 길이가 일곱자 이상이며 아가리는 주먹을 넣어 휘두를 만큼 큰 것들이 와작지껄 싸다니며 발'굼치를 맞대고 궁둥이를 비벼대는데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축내는 것이 이놈들보다 더한 것이 없으나 이놈들을 잡으려 하여도 잡아 넣을만한 큰 바가지가 없소구려!》라고 씀으로써 놀고 먹는 량반 통치배들을 누구보다 미워했다고 말하자 동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리하여 18세기 우리 나라가 낳은 박 연암 선생은 선진적 사상가이며 뛰여난 재주를 가진 작가로서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로력과 슬기를 아낌없이 바친 애국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후 분단 동무들은 연암 선생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여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였습니다.

이 분단 뿐만 아니라 력사를 배우고 있는 4, 5학년 동무들은 리 순신 장군, 강 감찬 장군, 을지 문덕 장군 등 명장들에 대한 이야기 모임들을 가지였습니

강 감 찬

세 종 왕

다. 3학년 소년단원들도 《우리 나라 명인들》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 모임을 가지였습니다.

내가 3층 복도를 지날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소년단원 동무들은 명인들의 초상화 앞에 저 마끔 둘러 서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 순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나라의 것이라면 털끝만한 것이라도 귀중히 여겼대》, 《강 감찬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하고 약한 동무들을 잘 도와주었대. 그리구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고 복습했대》. 서로 자기 분단에서 연구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있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혁명 활동을 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위인들이 싸운 곳을 답사도 하며 그 지방 소년들과 편지 련락을 통해 자료들을 모으는 등 이들은 계속하여 우리 나라의 자랑스런 명인들과 혁명가들을 연구할 훌륭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 있어 연개 소문, 세종왕, 김 정호, 최 무선 등에 대한 이야기 모임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애국심과 혁명 활동을 본 받는 창덕 인민 학교 소년단원들은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평남 대동군 창덕 인민 학교에서)

옥 선

백 상 범

서덕산 기슭 인민 학교 앞 언덕에는 사과나무들이 싱싱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과 소년단원들은 이 사과 나무들을 바라볼 때면 의례히 지원군 아저씨들의 은공을 생각하군 합니다.

1951년 초였습니다. 중국 인민 지원군 양 봉산 중대는 우리 조국 북반부에 기여들었던 미제 강도놈들과 리 승만 고용병들을 무찌르며 금천 계선에 이르렀습니다. 한놈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잡아 치우려고 수색전을 전개하던 중대 아저씨들은 산 기슭에서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천하의 악당들!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학살했구나. 저주할 놈들!》.

서 춘림 아저씨는 자기 집에 두고 온 어린 딸을 생각하며 분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였습니다. 방어선에서 얼마간 떨어진 부락 산 기슭에 조그마한 토굴집이 하나 있었는데 원쑤들의 비행기 두대가 벼락같이 날아 들더니 이 토굴집에다 마구 폭탄을 퍼붓는 것이였어요. 지원군 아저씨들은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려 가 보니 토굴집은 벌써 몽땅 타 버렸고 집안에 있던 사람은 죽은 것이였어요. 이때 한 어린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이 집 아이인데 그때 일곱살 밖에 나지 않았댔지요. 어린 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애처럽게 통곡을 하는 것이였어요. 이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서 춘림 소대장 아저씨는 고향에 있는 자기 딸처럼 아이를 다정하게 달래면서 품에 안고 중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후부터 그 아이는 지원군 아저씨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중대의 딸》이 되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련이라고 부르는데 이쁘고 착한 아이여서 지원군 아저씨들은 그 아이를 《호얼》(이쁘고 착한 아이)이라고 부르군 했답니다. 정련이는 지원군 아저씨들을 무척 따랐답니다. 《지원군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이 어린 정련에게는 제일 기뻤어요. 그러나 정련이는 서 춘림 소대장 아저씨 곁에 오래오래 언제

나 같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지원군 아저씨들은 어려운 전투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부득이 정련이를 애육원으로 보내였습니다.

지원군 아저씨들은 한시도 정련이와 조선의 많은 어린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1952년 1월 1일이였습니다. 서 춘림 소대 아저씨들은 다른 소대 아저씨들과 함께 천덕산에서 원쑤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전투 임무를 맡았습니다. 천덕산은 중요한 고지였어요. 만약 이 고지를 원쑤들한테 빼앗기는 날이면 그 넓은 뒤'벌과 마을들은 몽땅 원쑤들의 손에 들어 가게 될 것이고 또 정련이가 있는 애육원도 념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를 지키는 지원군 아저씨들은

《천덕산은 우리의 대문이다. 조선의 자유, 조선의 귀여운 어린이들의 행복, 이것은 중국의 자유이며 중국 어린이들의 행복이다. 이 대문을 피로써 지키여 조선과 중국의 자유와 어린이들의 행복을 지키자!》라고 웨치는 것이였어요. 원쑤들은 폭탄과 포탄으로 이 고지를 두 세차례씩이나 뒤집어 놓았고 총탄을 비'발 같이 붓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아저씨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고지를 끝까지 지키다가 마침내 힘차게 원쑤들을 무찔러 나갔습니다. 이때 서 춘림 소대장 아저씨는 전체 소대원들에게 이렇게 구령을 내리는 것이였습니다.

《동무들! 정련이는 우리들에게 원쑤를 갚아 달라고 부탁하였소. 우리의 귀여운 정련이와 조선의 전재 고아들의 원쑤를 갚으려 나아갑시다. 소대 돌격 앞으로!》 하고요.

지원군 아저씨들은 어려운 고비를 넘고 넘어 전투를 승리로 끝냈습니다.

그후 양 봉산 중대는 《천덕산 영웅 중대》라는 영예로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였습니다.

《천덕산 영웅 중대》라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받은 중대의 서 춘림 소대는 바로 서덕산 기슭, 어느 한 아늑한 마을에서 휴식을 하게 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린이들은 영웅 아저씨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였어요. 이곳에서 퍼그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지원군 아저씨들을 뵈려고 과실, 떡 여러가지 음식을 차려 가지고 찾아 오는 것이였습니다. 이웃 군에 있는 애육원 원아들도 원장 선생님과 함께 찾아 왔답니다. 서 춘림 소대 아저씨들은 몹시 기뻐하는 것이였어요. 혹시 정련이가 그틈에 섞여 있지나 않을가 해서였지요. 그런데 정말로 정련이가 바로 그 애육원 원아였답니다. 지원군 아저씨들은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서로 정련이를 껴안고 입을 맞춰 주기도 하며 먹을 것도 쥐여 주고 하였답니다.

지원군 아저씨들은 제일 반가운 것이 정련이였지만 다른 원아들에 대하여서도 무척 반겨하는 것이였지요.

지원군 아저씨들과 애육원 원아들은 하루 종일 유쾌히 잘 놀았답니다. 서 춘림 소대장 아저씨와 대원 아저씨들은 정련이와 원아들을 다시 돌려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련아! 우리들은 너의 원쑤를 갚으러 또 나가겠다. 안심하고 무럭무럭 잘 커라!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의 기둥이 꼭 돼야 한다. 미국놈을 모조리 쫓아 버리고 올께…》.

소대장 아저씨의 말에 정련이는 다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네》 하는 한마디의 대답만으로 굳게굳게 속다지는 것이였습니다.

지원군 아저씨들과 원아들은 서로 헤여졌습니다. 아저씨들은 인민 학교 앞 언덕까지 나와서 오래 오래 손을 흔들며 바래 주는 것이였습니다. 원아들은 산구비를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는 이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는 이쪽을 향해 다시 뛰여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아이는 바로 정련이였습니다. 정련이는 막 달려 오더니 소대장 아저씨에게 사과 두 알을 내드리는 것이였어요. 소대장 아저씨는 정련이를 추겨안고 또다시 입을 맞춰 주는 것이였습니다. 다른 아저씨들은 그저 눈물만 글썽해서 바라보는 것이였습니다. 정련이는 그제서야 마음이 후련했던지 그때는 생긋 웃으면서 냉큼냉큼 다시 뛰여 가는 것이였습니다.

서 춘림 소대장 아저씨는 사과를 두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였습니다. 소대장 아저씨는 좋은 생각을 해낸 것이였습니다. 소대장 아저씨는 사과를 여러 쪼각으로 쪼개서 소대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사과를 먹은 후 씨앗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자기한테로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과씨를 인민 학교 앞 언덕에 심자는 것이였습니다. 모두 박수를 치며 찬성했습니다.

그 이듬해 봄 지원군 아저씨들은 사과

씨를 정성 담아 심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들은 사과씨가 싹트기 전에 전선으로 다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사과씨는 잘 트이여서 탐스럽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도 이름난 김 치선 모범 농민이 그 사과 나무를 정성껏 가꾸었지요.

정전이 된 후 《천덕산 영웅 중대》 아저씨들은 다시금 이곳 마을로 돌아 오게 되였습니다. 정련이와 원아들은 형제 나라들로 공부하려 떠나 갔기 때문에 서 춘림 소대 아저씨들을 맞지 못했습니다.

사과 나무는 심은지 3년이 가까와 왔습니다. 서 춘림 소대 아저씨들이 심은 사과 나무는 그 동안에 퍽그나 자라났습니다. 고국으로 떠나가는 지원군 아저씨들의 건강을 축복하는듯 어린 사과 나무는 사르륵 춤추는 것이였습니다.

《이 사과 나무처럼 무럭무럭 커라! 그래서 조선의 래일을 무성하게 해야 한다》. 서 춘림 소대장 아저씨는 소년단원들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네! 우리들은 커서 아저씨들처럼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겠습니다》.

소대장 아저씨 곁에 서 있던 한 소년단원은 눈물이 글썽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을 농업 협동 조합 김 치선 위원장(그전의 모범 농민) 아저씨도 감개 무량하여 말하였어요.

《저 사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선물로 꼭 보내 드리리다. 씩씩히 자라나는 마을 어린이들의 소식도 그리고 정련이의 소식도…》.

그 지원군 아저씨들이 떠난지도 어느덧 두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을 사람들과 어린이들은 그 사과 나무를 바라보며 그 아저씨들이 남긴 은공에 감사합니다.

실습지에서

맑고 푸른 하늘이 점점 높아 가는 초가을 어느 날입니다.

자강도 위원 제 7 중학교(인민반)의 200평 남짓한 실습지에는 공부를 끝낸 소년단원들의 한 떼가 몰려 왔습니다.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실습지에다 여러 가지 농작물들과 사탕무, 사탕수수, 아마 등 공예 작물들을 가꾸면서 실험들을 해왔답니다. 여러가지 재배 식물을 가꾸면서 땅을 깊이 갈고, 얕게 가는 것 그리고 일찍 심은 것과 늦게 심은 것이 수확에서 얼마나 차이 있는가를 실험해 온 그들은 지난 해에 처음으로 심게 된 사탕무도 이러한 방법으로 실험하였습니다(사탕무는 2년생이다). 선호와 종식이는 땅 깊이를 각각 달리 갈고 심은 사탕무 네개를 뽑아다 저울에 달아 봅니다. 그런데 꼭 같은 종자를 꼭 같은 날에 심고 비료도 같이 주었는데 깊게 갈고 심은 것과 얕게 갈고 심은 것은 수확에서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15cm 깊이로 갈고 심은 것은 515g, 25cm 깊이로 갈고 심은 것은 525g, 30cm 깊이로 갈고 심은 것은 700g로 깊이 간 것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그들은 모두 학습장에 써 넣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땅을 깊이 갈수록 땅 속에는 물과 공기가 잘 통한다더니 사탕무도 깊이 갈고 심은 것이 확실히 크구나!》.

《그럼. 물이 잘 통하면 땅 속에서 어린 뿌리들은 비료 성분을 쉽게 그리고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선호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그들은 땅을 깊

이 갈수록 수확이 많아진다는 지난 해까지의 실험 결과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봄이 짧고 추위가 일찍 닥쳐 오는 자기 고향에서 사탕무의 파종에 알맞는 날자를 알기 위하여 4월말과 5월 중순에 심은 사탕무를 비교해 실험했습니다. 늦게 심은 사탕무는 수확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당분량도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로력과 꾸준한 관찰 실험들을 통해서 이미 배운 지식을 보다 넓고 깊게 다지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올해의 실습지 총화와 함께 래년부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농작물과 함께 파수류 재배도 시작한다는 것이였어요.

특히 그들은 이 지방에 있는 아광나무에 다른 지방의 사과 나무를 접하고 새 열매를 얻기 위한 계획도 하고 있었어요.

실습지 한 모퉁이에는 래년 봄에 접할 아광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 소년단원들은 모두 새 열매 맺을 그날을 위해 더욱 꾸준한 연구와 로력을 거듭할 굳은 결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자강도 위원군 제7 중학교
(인민반) 데에서
최 화 규

평북 박천 인민 학교
제5 학년 윤 능자

지금은 고향에서 공장 세우는
기사로 일하신다 편지 보내준
보고 싶은 아저씨 호영 아저씨
나는 나는 언제나 생각 나요.

내가 만든 종이배 동동 띄울 때
떵호떵호 좋다고 칭찬하시며
나와 함께 배'놀이한 호영 아저씨
양산도도 멋지게 부르셨지요.

산수 숙제 풀다가 내가 막히면
우우 다섯이라 손펴 보이며
몇번이고 가르쳐주던 호영 아저씨
학생때엔 언제나 우등했대요.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시는 날
호캉호캉 곱다면서 나의 가슴에
붉은 넥타이 매여주신 호영 아저씨
나는 나는 언제나 생각나요.

시 학습에서 영웅 되자

박 근

어머니와 아버지 손목을 잡고
붉은등 푸른등 눈부시게 빛나는
백화점 층층계를 올라갑니다.
새학용품 사려고 올라갑니다.

곱게 곱게 정돈된 무지개 테프 아래
갖가지 학용품이 줄지어 기다리는
모범기'발 자랑찬 진렬장 앞에 가요
새학용품 사려고 빨리 빨리 가지요

새로 적은 가격표 가슴에 달고
물건들은 앞다투어 사가랍니다.
《동무 동무 어린 동무 내말 들어요.
값 싸고 질 좋은 나와 함께 공부해요》.

학습에서 친근한 나의 동무야
학습장도 연필도 모두 모두 오너라.
언제나 최우등생 자랑도 많은
나와 함께 공부하자 어서 오너라.

새학용품 듬뿍 받아 안고서
백화점 층층계를 내려 왔더니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시네.
최우등생 되였으니 옷감도 사준다고—

공부를 잘 하는건 내가 할 일인데도
선생님도 아버지도 칭찬만 해준다네.
공화국의 씩씩한 소년단원 동무들아
그러니 우리 모두 학습에서 영웅 되자!

빛나는 력사의 한 페지

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29년 11월 3일을 조선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한 날로 뜻 깊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1910년에 조선을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총칼로 억눌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굴하지 않았다. 특히 1919년의 3•1 운동은 조선 인민의 힘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조선 인민의 힘찬 투쟁에 타격을 받은 일제는 무력으로 내리 누르던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다르게 《문화 정치》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을 더욱 심하게 압박하며 착취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높아갔다. 이 투쟁의 앞장에는 로동자들이 섰다. 조선 로동자들은 일본 소년 로동자와 같은 낮은 임금을 주며 감옥 같은 공장에서 죄인처럼 일시키는 일제를 반대하여 파업과 시위로 투쟁하였다. 1926년의 6•10만세 시위 운동을 비롯하여 3개월간 계속된 원산 지구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 등 힘찬 투쟁은 계속되였다.

한편 조선 농민들도 로동자들의 투쟁과 발맞추어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일제는 조선 농민의 땅을 빼앗아 그들을 소작인으로 만들었으며 땀흘려 지은 쌀은 일본으로 실어 갔다. 그리고는 만주에서 좁쌀을 실어다가 비싸게 팔아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였다. 놈들은 자기들의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면 소작땅마저 뗐다. 때문에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폭동은 줄기차게 일어났다.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은 학생들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본인 학생은 조선 학생들에게 조선 민족을 멸시하며 모욕하는 밉살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여 오던 광주 고등 보통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사범 학교, 녀자 고등 보통 학교 등의 전체 애국적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광주시내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차별 정책을 반대하여 한결 같이 일어나 동맹 휴학과 시위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웠다.

광주에서 일어난 이 소식이 각지에 알려지자 전체 애국적 학생들은 광주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동맹 휴학으로 시위로 용감히 투쟁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자!》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자!》 《조선 민족 해방 만세!》 등 학생들의 웨침은 조국의 강산에 높이 울렸다. 2천여명 학생들이 체포 당하면서 1930년 봄까지 7개월간 5만 4천여명의 학생들이 계속 투쟁했다.

이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힘차게 일어났던 학생들의 투쟁은 로동자 농민을 선두로 한 근로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한부분으로서 조국의 력사에 빛나고 있다. 이 투쟁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애국 정신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다. 또한 일제를 대신한 미제의 강점 밑에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고 있다.

시 **논에서도 영웅**

김 귀 련

가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우리 마을 협동논에도 풍년이
왔네.
아저씨는 오늘도 가을 거두기
한창
집채보다 더 높이 벼'단을 쌓네.

진달래 한창 피던 맑은 봄날에
배낭지고 돌아오던 군인 아저씨
그 아저씨 환영하는 선전실로
우리 모두 달려 간건 어제 같은
데…

미국 땅크 불지르던 그 솜씨겠군
보'둑쌓을 때 날낸 삽질 이름 높
았고
총을 쏘며 몰아가던 락동강 전선
구포벌 그 논들이 눈에 뵌다며
우쩍우쩍 쉴새없이 일만 하드니

요즘 우리 마을엔 새 이름 하나
그 사람은 《논에서도 영웅》이라
고…
모 심을때 몇몫인지 따를 이 없
드니
낫을 들어 벼빌때도 번개같구요
벼'단 지고 달리는게 비행기래요

지금도 우리 모두 논'둑 지나다
일손 끝난 아저씨를 에워싸고요
어데서 그런 힘이 솟나 물으니
타작이 다 끝나는 긴 겨울밤
총이야기 논이야기 다 해 준대
죠…

벼'단 들어 번쩍 어깨에 메고
아저씨를 숭내면서 뛰여 가는데
들'길에는 가을꽃이 아름다워요
먼 후일 그 앞날 그 앞날까지
우리 마을 협동논에는 풍년이
오리.

1956 • 가을

수도'물 장난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던 황주 제2 인민 학교 3학년 2반 유 용학 동무와 리 종수 동무들이 길'가 수도 옆을 지날 때입니다.

용학이는 《얘 난 세수하고 갈래》하며 수도'가로 뛰여 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는둥 마는둥 대강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물이 나오는 구멍에 손'바닥을 대고 물이 분수처럼 뿌려지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야! 멋지구나》

종수의 마음도 분수에 쏠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종수도 수도'가로 뛰여 갔습니다.

용학이는 손'바닥을 이리저리 돌려 가며 다가오는 종수에게 분수 같이 내뿜는 수도'물을 끼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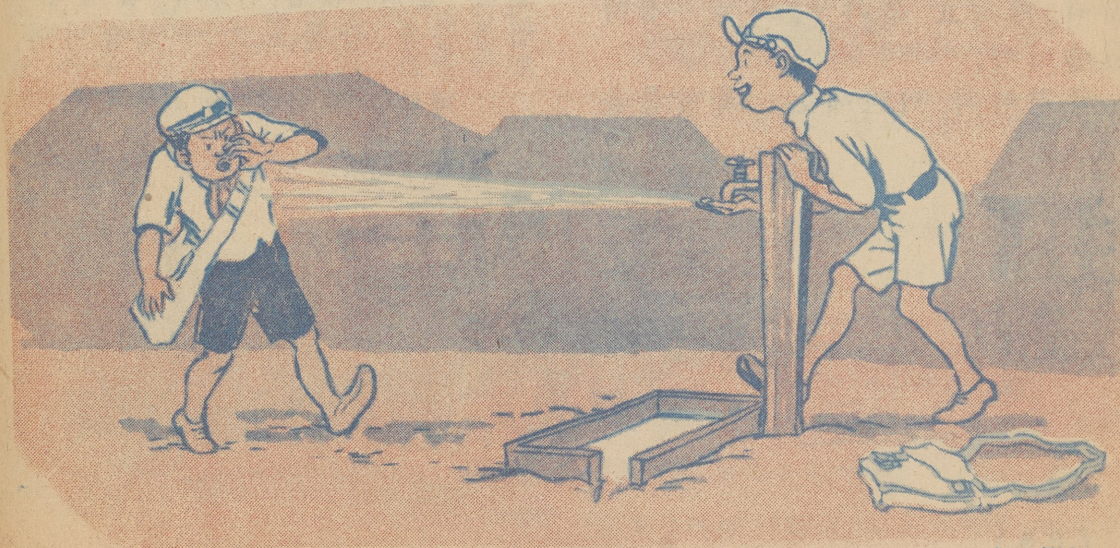
종수는 꽥 소리를 지르며 물을 피해 이리저리 뛰였습니다.

용학이는 재미나서 자꾸자꾸 물을 뿌립니다. 수도'물은 멀리 길가던 사람들에게까지 뿌리워져 갔습니다.

이때 길가던 아저씨 한분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소년단원들! 학교에 늦겠소, 물장난 그만 하고 가지요》.

힐끔 아저씨를 바라본 용학이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종수와 함께 학교로 달려 갔습니다.

(렴 재형)

녹쓴 수류탄

지난 4월 10일이였습니다.

이날 점심을 먹고 난 종칠이는 승길이와 공을 찼습니다.

종칠이가 승길이에게 공을 차 보내자 승길이는 멋지게 받아 넘기려고 발에 힘껏 힘을 주어 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공은 팽팽 돌면서 빗달아났어요. 종칠이는 《얘 똑똑히 차렴으나!》하며 공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런데 공은 어디로 갔는지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피는데 도랑 옆에 감자처럼 둥글둥글한 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유심히 들여다 보던 종칠이가 《얘! 이게 수류탄 아니냐?》.

이렇게 웨치자 다급히 뛰여온 승길이는 《응. 그런 것 같애. 그래도 녹이 쓸어서 안터질거야. 우리 가지고 놀가?》하는 것이였습니다.

종칠이의 머리에는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절대로 만지지 말고 내무서 아저씨들에게 알리여야 한다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문득 떠 올랐습니다.

《안돼! 만지면 안돼! 분주소에 알려야 돼!》하며 종칠이는 달려 갔습니다.

분주소 아저씨는 그곳에서 수류탄을 59개나 캐여냈습니다.

분주소 아저씨는 그들에게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곳을 강점했던 미국놈들이 달아 날 때 묻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모르고 호미질이나 삽질을 하다가 뢰관을 치게 하여 우리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승길이 말대로 가지고 놀았으면 정말 큰 일 날번했습니다》 하시면서 종칠이를 칭찬하는 것이였습니다.

평양 중구역 내무서에서는 이 일을 알자 종칠이에게 감사장과 학용품을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평양 제20 인민학교 대에서

몸을 튼튼히

서늘한 가을을 맞아 우리 학교 체육 사업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방과 후이면 체육을 즐기는 소년단원들의 씩씩한 모습으로 운동장은 들어찹니다. 지난 학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 체육 사업은 몇몇 선수들이 련습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년단원들이 다 같이 체력을 단련하는데는 좋은 방법이 아니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새로 선거된 우리 대 열성자들은 지난 8월 20일 열성자 모임을 가지고 대와 각 분단들에서 여러가지 체육을 광범히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분단들에서는 반별 대항, 대에서는 분단 대항으로 축구, 피구, 유희 등 여러가지 재미있는 체육 경기를 널리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체육을 즐기게 한 것은 참 좋은 방법이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가 선수들처럼 축구도 피구도 잘 하며 어떤 운동이나 다 잘 하게 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학교 대에서는 청 홍군 대항으로 체육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대에서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체육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체력 검정에 훌륭히 합격하렵니다.

함북 종성 인민 학교 대 위원장
한 태 룡

우리 학교 도서실

우리들은 책들이 많이 늘어 가는 도서실을 자랑합니다.

우리 학교의 도서실 책장에는 지금 500여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00여권은 새로 장만한 책들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장만한 것이랍니다.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도서실에 책을 더 많이 만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 위원회에 내놓았

원 밖으로 내몰기

유희할 사람들은 모두 큰 원형을 만들며 둘러선다. 그 복판에 두 명의 선수가 나간다. 그 두 사람은 나즈막히 약간 무릎을 굽고 앉으며 두 손바닥을 앞으로 내민다.

심판하는 사람이 신호를 내리면 유희가 시작된다. 두 사람은 서로 재빨리 마주 밀어 댄다. 이 유희는 상대방의 손을 자기의 손으로 밀어치면서 그의 몸의 균등을 바로 잡지 못하도록 하며 또는 원형으로 서고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몸이 닿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두 사람중 한 사람이 몸의 균등을 잃고 넘어지거나 또 서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몸이 닿게 되면 그는 진 것으로된다.

원의 한 복판에 있는 심판자는 유희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유희로 아래와 같이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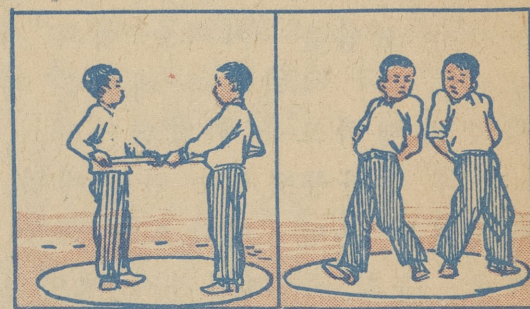
(1) 직경 3m 가량의 원형을 그려 놓고 두 선수가 원 복판에 들어선다. 두 선수는 약 1m의 길이로 된 1개의 막대기를 서로 두 손으로 맞쥔다. 두 선수는 서로 밀고 당기면서 상대편을 원 밖으로 내몬다. 원 밖으로 발을 내민 선수는 진 것으로 된다.

(2) 우의 것과 같이 원 안에 들어선 두 선수가 막대기 대신 뒤짐을 지고 서로 어깨로 밀치면서 원 밖으로 내몰기 내기도 재미 있다.

※주의 막대기를 놓거나 뒤짐진 두 손을 놓을 때도 진 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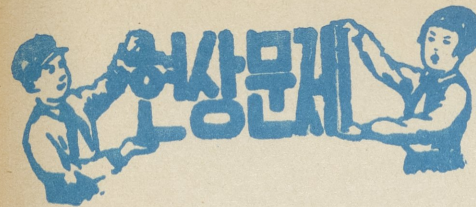
습니다. 대 열성자 모임에서는 여러 동무들이 짬짬이 폐품을 모으고 나무 씨앗을 따서 국가에 바치며 여기서 얻어지는 돈으로 책을 사기로 의논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년단원들의 열성으로 고고무 200㎏ 도토리 182㎏ 아까시야씨 50여 ㎏를 수매소에 바치고 받은 7천여원의 돈으로 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로력으로 얻어진 책들을 동무들이 즐겨 읽고 있습니다.

하루의 공부가 다 끝나면 많은 동무들이 매일 도서실에 찾아 옵니다.

벌써 리 금찬 동무는 달마다 나오는 《소년단》 잡지는 물론 《도끼장군》 《만경대》 등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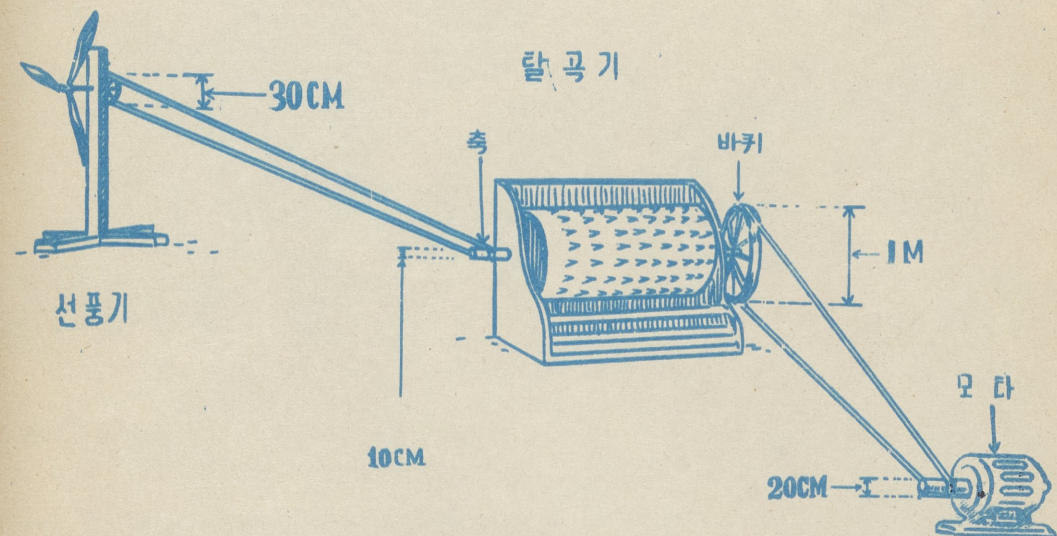
이처럼 새 책들을 즐겨 읽는 우리들은 훌륭한 책들을 더 많이 읽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연탄군 장지 인민 학교 대
위원장 오 명 영

바퀴의 회전

그림과 같이 탈곡장에 놓여 있는 탈곡기와 선풍기는 피대로 련결되였는데 모타의 힘으로 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림을 보십시요. 탈곡기 바퀴의 직경은 1m, 그의 회전축은 직경 10cm, 선풍기의 바퀴는 직경 30cm입니다. (모타의 바퀴의 직경 20cm)

지금 모타 바퀴의 회전 속도는 1초 동안에 45회입니다. 탈곡기와 선풍기는 각각 몇회를 돌가요?

그리고 탈곡기의 회전 속도는 알맞는데 선풍기의 회전 속도를 지금 보다 6배 더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가요.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6년 10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10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10호 총(85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235 값 25원 52,170부 발행